

존재의 보편적 법칙*에 따른 순결한 성(性)의 구현 — 통일사상**의 시각에서 —

문 상 희
선문대학교

〈요 약〉

성은 인류공동체를 형성하는 근원이다. 인류역사는 성으로부터 시작되어 성으로 이어져간다고 볼 수 있다. 가정과 인류공동체의 안정과 복지, 그리고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성(性)의 질서가 요구된다. 성의 질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성의식과 성태도에 의해 형성되며, 그 성의식들의 보편적 법칙이 성규범이다.¹⁾ 가정과 사회에서 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구성원들이 성규범을 준수해야 그 질서가 가능하다. 존재의 보편적 법칙, 즉 성규범을 준수하는 삶은 순결한 성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 순결한 삶을 산다는 의미는 순결한 성의 구현을 의미한다. 성규범은 인간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며, 순결한 삶을 살아야하는 이유를 말해주며, 순결한 삶으로 안내하며, 순결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²⁾

* 통일사상은 보편적 법칙을 천법, 또는 천도라고도 말한다. 이 법칙은 인간이 만든 법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로고스가 법칙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청사진, 구상, 계획, 사고를 뜻하며, 로고스는 이성과 법칙을 말한다. 이성과 법칙은 통일의 관계로서 자유성과 필연성의 통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이성은 인간의 이성과 구별된다. 피조물의 저차원으로 갈수록 법칙적 요소가 많으며, 고차원의 인간에게는 이성의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인간에는 이성적 요소만 작용하고 법칙적 요소는 전혀 없는 것 같으며, 광물에는 법칙적 요소만 작용하고 이성적 요소는 없는 것 같으나 모든 피조물에는 이성적 요소와 법칙적 요소가 함께 통일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우주, 자연세계, 그리고 인간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이성적 작용과 더불어 보편적 법칙에 따라 존재, 작용, 운동, 번식, 발전하는 것이다.

** 통일사상이란 하나님주의, 또는 두익(頭翼)사상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주의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을 말하며, 두익사상이란 우익도 아니요, 좌익도 아닌 더 높은 차원에서 양자를 포용하는 사상을 말한다. 통일사상은 하나님아래 인류대가족주의이념을 실현함과 아울러 인류의 난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상이라고 말한다. 통일사상은 문선명 선생의 사상이며 원리강론, 말씀선집 약500권, 그리고 이상현 선생이 철학적 체계로서 1973년에 정리한 통일사상요강에 잘 설명되어진다.

이 논고는 성규범을 준수하는 삶으로서의 순결한 성이 무엇이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순결한 성의 구현인가를 탐색하여 왜곡된 성의식과 성태도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순결한 성규범교육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안하는 목적이 있다. 이 글은 통일사상의 시각으로 존재의 보편적 법칙에 따른 순결한 성의 의미로서 논의를 전개하고자한다.

핵심 주제어: 성의식, 성태도, 성의 질서, 성규범, 보편적 법칙, 순결한 성

I. 들어가는 말

성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다. 인간은 부모의 성(性)을 통해서 인간존재로서 탄생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독자적 의지나 계획, 또는 자신의 선택이나 희망사항이 고려될 여지가 전혀 없이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다.³⁾ 인간은 부모가 낳아 준 생물학적 성인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나서, 사회적 성으로서 사회가 기대하는 남성,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을 수행하며, 전인격적인 성으로서 개성을 지니고 고유한 삶을 살아간다. 양성(兩性)은 각기 남성,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특성은 서로 대립적이지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며, 협력적이고, 보완관계로서 생존, 번영을 추구하면서 서로가 합일적인 조화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으로서 각기 삶을 살아간다.

인간의 존재의미는 한쪽 성(性)만의 의미로서 설명되어질 수 없다. 인간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부부공동체의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출산하여 혈연적 가계를 형성하며 친족, 종족, 민족, 국가, 더 나아가서 세계를 형성한다. 성은 인류공동체를 형성하는 근원이다. 그러므로 인류역사가 성으로부터 시작되어 성으로 이어져간다고 말할 수 있다.

가정과 사회공동체의 안정과 복지,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성(性)의 질서가 요구된다.⁴⁾

1) 문상희, 『심정과 규범의 대학교육: 애친, 애인, 애국의 건학이념의 구현을 중심으로』, 『한학자 화갑 기념집』(서울: 성화사, 2003), 363쪽.

문상희는 규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규범은 인간 자신의 인격성숙과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기대되는 도덕적 윤리적 행위들, 즉 덕목들의 절대적 준거이며, 안내이며, 이유이며, 그리고 방법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규범은 문화, 시대, 사상, 종교, 인종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에서 가치법칙을 말한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주는 법칙이다. 규범을 성에 적용하면 성규범은 순결한 삶의 기준, 안내, 이유, 방법이 될 수 있다.

2) 순결은 인간 삶의 덕목들 중에 하나의 덕목이다. 성규범의 의미는 인간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며, 순결한 삶으로 안내하며, 순결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3) 남기영, 허우성, 김수중, 정연고, 최정식,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회생물학, 플라톤, 유가, 불교, 기독교를 통해 본 인간』(서울: 민음사, 1997), 266-267쪽.

성의 질서는 가정과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가정과 사회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가정과 사회는 다양한 성문제 발생으로 성의 무질서 가운데 몸살을 앓고 있다. 다양한 성문제들의 발생 요인들 가운데 대중문화의 향락적 성의 상품화는 왜곡된 성의식과 성태도를 수립하는 성의 사회화의 매체로 작용하고 있어 성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⁵⁾ 또한 가정과 사회의 문제로서 이중적 성규범의 특성은 남성의 입장에서 자기 아내와 딸은 순결하기를 원하면서 자신이 즐기는 성적 쾌락의 대상은 순결과 무관하다는 성의식이 문제이다. 한편 성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가정과 학교교육이 성의 무질서를 바로 세우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⁶⁾ 따라서 우리사회는 왜곡된 성의식과 성태도를 지닌 기성세대들의 성문란은 물론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성의 질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성의식과 성태도에 의해 형성되며, 그 성의식들의 법칙이 성규범이다.⁷⁾ 다시 말해서, 성규범이란 가정과 사회에서 성의 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그곳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통일된 성의식과 성행동의 기준으로서, 이유로서, 안내로서, 방법으로 작용하는 법칙적 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하는 통일된 기준의 일정한 법칙들이 있다. 그 법칙들은 모든 존재세계의 존재들이 순응하면서 지켜지는 존재의 보편적 법칙들이다.

보편적 법칙을 인간의 성에 적용하면 성규범을 준수하는 삶은 순결한 성의식과 성태도를 갖는 삶이라고 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성규범은 인간생활에서 개인의 성행위를 위한 규범인 동시에 가정에서 부부가 따라야할 성규범이 있으며, 부부외의 타인과의 성행위나 성관계를 제재하는 사회적 관계로서 지켜야할 성규범이 있다.⁸⁾ 가정의 성의질서는 사회의 성의 질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성규범에 따른 순결한 성의식과 성태도를 가지고 성의 질서를 유지한다면 우리 사회는 건전한 성의 질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⁹⁾

4) 윤가현, 『성 문화와 심리』(서울: 학지사, 2002), 489-491쪽 참고.

5) 이성희, 한희선, 『청소년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자원개발연구소논문집』 제2권 제1호, 1996, 35-46쪽.

6) 우리사회의 성문제들이 우리의 가정과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8년에 대구 초등학교의 집단성 폭력사건이나 낙태와 미혼모들의 급증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7) 문상희, 『심정과 규범의 대학교육: 애천, 애인, 애국의 건학이념의 구현을 중심으로』, 『한학자 화갑 기념집』(서울: 성화사, 2003), 364쪽.

8) 한태선, 『조선전통사회의 신분독점과 이에 따른 규범문화형성』, 『한국사회의 규범문화』(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200-202쪽.

9)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단위는 가정이다. 따라서 가정의 성질서는 사회의 성질서의 근간이 된다. 가정의 구성원, 남자, 여자가 사회의 다양한 유혹이 있더라도 성의 질서를 굳건히 지켜나간다면 사회의 성질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논고는 성규범을 준수하는 삶으로서의 순결한 성이 무엇이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순결한 성의 구현인가를 탐색하여 왜곡된 성의식과 성태도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순결한 성규범교육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안하는 목적이 있다. 이 글은 통일사상의 시각으로 존재의 보편적 법칙에 따른 순결한 성의 의미로서 논의를 전개하고자한다.

Ⅱ. 순결한 성의 의미

우리가정과 사회에서 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구성원들이 성규범을 잘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한다. 성규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순결한 성의식과 성태도를 가진 순결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¹⁰⁾ 순결한 삶을 구현하려면 순결한 성이 무엇인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순결한 성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순결한 삶을 위해 순결에 대한 명확한 발전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 논고는 순결의미에 대한 해석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전적 순결의미, 한국전통적 순결의미를 살펴보고 기존의 순결의미를 보완 할 수 있는 순결의미로서 통일사상의 시각에서 보는 순결의미를 알아보하고자한다.

1. 사전적 순결의미

순결(純潔)은 한자적인 풀이를 할 때 순(純)은 ‘생사, 실, 순색의 비단, 순수하다, 섞임이 없다.’는 뜻이 있고 결(純)은 ‘깨끗하다, 품행이 바르다, 깨끗이 하다, 몸을 닦다.’라는 뜻이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첫째,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에 있는 것, 둘째, 여자가 성적(性的)인 경험을 하지 않고 처녀의 몸을 지키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셋째, 남자나 여자가 문란하거나 부도덕한 성관계를 맺지 않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첫 번째의 의미는 순결이라는 낱말 그 자체를 풀이 한 것이고, 두 번째의 의미는 전통적인 사회적 통념에 의해 나타난 의미를 말하는 것이며, 마지막의 의미는 첫째와 둘째의 의미를 조화롭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¹⁾

10) 존재의 여섯 가지의 보편적 법칙을 탐색하여 볼 때, 보편적 법칙, 즉 성규범을 잘 준수하는 삶이 곧 순결한 삶이라고 이해하게 된다.

11) 순결이란 용어의 영어표현으로는 더러움이 없는 상태(Innocence), 법에 반하여 성적인 행동을 일체하지 않는 것으로 간통하지 않는 것, 또는 동정 처녀성을 지키는 것(Chastity), 마음의 결백상태(Purity)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구미에서 성교육(Sex Education)이란 용어는 있어도 순결(Chastity Education)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성교육이 광범한 인간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성의 절제의미로서 절제교육(abstinence education)이 있다.

2. 전통적 순결이해

한국의 전통적 성의 역사 가운데 그 어느 시대보다 순결한 삶을 강조한 조선시대가 한국의 전통적 순결을 대표하는 시대이므로 조선시대의 순결이해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순결관은 특히 여성에게 강조하는 규범적이며, 법적 제도적 순결관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여자가 순결해야 가부장인 남편의 순수한 혈통을 이을 자손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만 순결과 정절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보는 시각에서 조선시대의 순결관은 여성을 속박하는 굴레로 보게 되었다. 남자는 축첩이 가능했고 기생들과 외도를 자유롭게 해도 허용되는 순결의 이중규범 적용의 가부장제도하에서 전통적인 순결한 삶은 여자에게만 적용되었다.¹²⁾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순결은 여성에게만 강조하는 일방적이고, 금욕적인 순결의 의미로서 이해하는 우를 범하였다. 전통적 순결은 순결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순결한 삶을 여성에게만 강요하며, 남성은 순결한 삶과 무관한 입장에 있어도 허용되는 가부장적 제도가 잘못된 것이었다. 즉 자신의 아내와 딸은 순결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는 한편, 남성들 자신뿐만 아니라 남성들과 즐기는 여성들에게는 순결한 삶이 요청되지 않는 이중적 성의식과 그 이중적 성규범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가정과 사회적 제도가 잘못된 제도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의 소재는 순결한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남성의 이중 성규범의식과 그것을 적용시키는 법적 제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순결한 삶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남성들의 이중 성규범 의식과 법적, 사회 제도적인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남녀에게 동일하게 통일된 성규범이 적용되는 가정과 사회제도에 의해 성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3. 통일사상의 시각에서 보는 순결의미

통일사상에서 보는 순결은 사전적, 전통적 순결의미와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순결한 삶의 구체적 실천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발전적 의미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순결은 인간 개체가 이루어야 할 소중한 덕목으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두 깨끗한 상태로 이해하며 남녀 관계로서 다양한 가치 활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간의 의식과 태도로서 핵심적 의미와 광의(廣義)의 의미로서 설명할 수 있다.

12) 박종신, 『순결, 그 아름다운 성이야기』(서울: 진흥출판사, 1997), 20-22쪽.

1) 순결의 핵심적 의미

사전적, 전통적, 기독교적 순결의미는 통일사상에서 보는 광의의 순결의미보다 핵심적 순결의미와 더욱 상통한다. 핵심적 순결의미는 본연(本然)의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남녀가 각기 정신과 육체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서 오직 한사람의 결혼한 배우자와 인격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이다.¹³⁾

육체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몸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문란한 성관계나 상함 없이 성장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정신적 순결은 본연의 인간의 특징을 살피봄으로써 알 수 있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본연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피조되었다고 한다.¹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하나님의 신상을 닮아 성상과 형상의 통일체¹⁵⁾로서 마음의 작용이 성상적 작용인 생심(生心)과 형상적 작용인 육심(肉心)이 있다.¹⁶⁾

본연의 인간의 정신적 순수함의 의미는 생심의 기능인 지, 정, 의, 작용의 진, 미, 선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작용이 주체이며, 육심의 기능인 의, 식, 주, 성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작용이 대상이 되어 생심과 육심의 작용이 균형을 이룬 마음을 의미한다. 즉, 생심작용이 주체가 되어 육심의 작용은 생심작용을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심과 육심의 마음이 균형을 이룬 인간은 하나님의 신상을 닮아서 양성의 실체인 남자와 음성의 실체인 여자가 통일적 조화체로서 결혼을 통하여 일체를 이루게 된다. 남자와 여자는 각기 마음과 몸이 통일을 이루는 인격체로서 혼전에 다른 이성과 성행위나 성관계를 갖지 아니하며, 혼 후에는 오로지 배우자와 성행위나 성관계를 함으로써 진, 선, 미, 참사랑을 추구하고 실현해야 한다.

2) 광의의 순결의미

광의의 순결이해는 창조본연의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모든 가치영역에서 인간의 존재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규범을 준수하는 의식과 태도를 말한다.¹⁷⁾

13) 문상희, 『통일사상으로 본 순결학의 이념과 교육내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통일사상연구논총』(아산: 선문대학교, 2002), 189쪽. 이 논문에서 순결학의 순결개념정립을 역사적으로 처음 시도함.

14) 이상현, 『통일사상요강』(서울: 성화사, 1993), 227쪽.

15) 통일사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신상과 신성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신상은 성상과 형상의 중화적통일체, 양성과 음성의 조화적 통일체, 그리고 개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상은 무형적, 주체적, 내성적, 원인적인 것이며 형상은 유형적, 대상적, 외형적, 결과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성상적인 작용가운데 생심이 있고 형상적인 작용가운데 육심이 있다.

16) 통일사상에서 인간의 마음은 생심과 육심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생심은 영인체의 마음작용이고 육심은 육체의 마음작용이라고 말한다. 생심은 지, 정, 의, 사랑의 기능을 하면서 각기 진, 미, 선,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한다. 육심은 의, 식, 주, 성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작용을 한다고 말한다.

17) 문상희, 앞의 글, 190쪽.

인간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격위(格位)적 존재¹⁸⁾인 동시에 연체적 존재¹⁹⁾이다. 개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성의 질서유지를 위해 존재위치를 벗어나지 않으며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닌 인간관계를 말한다. 격위적이며 연체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활동은 가정과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의 가치 활동의 영역, 즉 윤리,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예술, 과학, 스포츠 등의 삶의 자리에서 존재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규범적 의식과 태도를 지닌 삶을 말한다.

가정에서의 격위적이며 연체적 관계란 부모와 자녀관계, 부부관계, 형제자매관계의 상중하, 우중좌, 전중후로서 7개의 격위가 있으며 그 중심점을 초점으로 한 6방향의 각 위치가 연체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²⁰⁾ 개체가 가정에서 격위가 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7개의 위치가 사회공동체에 그대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²¹⁾ 성규범적 의식과 태도는 핵심적인 의미의 순결한 삶을 토대로 격위적, 연체적 존재로서 보편적 법칙을 삶에서 실천한다는 것을 말한다.

통일사상에서 보는 순결의미는 인간의 타락과는 상관이 없는 창조본연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성상형상과 양성음성을 그대로 닮은 모습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순결의 핵심적 의미와 광의적 의미를 모두 함축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이 순결한 삶인 것이다.

Ⅲ. 보편적 법칙의 준수는 순결한 성의 구현

위에서 순결한 삶을 위한 순결한 성의 의미를 핵심적 순결의미와 광의적 순결의미로서 명료화하였다. 순결한 삶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궁극적 목적은 순결한 삶의 실천을 통하여 순결한 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순결한 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인가를 탐색해야 한다. 순결한 삶이란 순결한 성의식이 성행동으로 표현됨으로써

18) 인간은 원상, 즉 하나님을 닮아서 주체 격위와 대상 격위를 지니게 된다. 인간은 먼저 부모 앞에 대상 격위로 태어나며 성장한 후에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게 될 때 주체 격위가 된다. 사회공동체에서도 하위의 대상 급에서 출발하여 상위의 주체 급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격위는 심적태도가 요구되는데 대상 의식은 하나님을 시봉하는 마음, 충성심, 효성심, 존경심, 복종심이 있고, 주체의식은 대상에 대한 관심, 사랑하는 마음, 적절한 권위심 등이 있다.

19) 인간은 개성진리체로서 다른 개성진리체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개체를 연체라고 한다. 연체는 구조로 본 연체, 목적으로 본 연체, 관계의 방향성으로 본 연체로서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20)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189쪽.

21) 격위로 본 연체로서의 인간은 상하, 전후, 좌우의 6방향으로 연체로서의 위치가 정해진다.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일체를 이룬 나를 중심하고 볼 때 위 방향으로 부모, 상사, 연장자가 있으며, 아래방향에는 자녀, 부하, 연하자가 있다. 앞에는 스승과 지도자, 선배가 있으며, 뒤로는 제자와 후배, 자기의 추종자가 있다. 오른쪽 방향에는 형제와 친구, 동료들이 있고, 왼쪽에는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성격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존재한다.

그 삶이 구현된다. 순결한 삶의 구현은 우리의 성의식이 보편적 법칙에 따라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규범이란 가정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성의식과 성행동 기준으로서, 안내로서, 이유로서, 방법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보편적 법칙적 틀이라고 이해하였다. 성의식의 법칙들은 자연과 우주의 법칙을 관찰함으로써 자연과 우주에서 작용하는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법칙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²²⁾

존재세계의 모든 존재와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가 존재, 작용,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들을 주관하는 우주의 보편적 법칙, 즉 자연법칙²³⁾과 가치법칙²⁴⁾을 준수함으로써 가능하다. 자연법칙은 존재하는 우주와 자연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칙인 동시에 인간의 몸이 따라야하는 법칙이며, 가치법칙은 인간의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칙이다. 가치법칙은 규범이라고도 말한다. 가치법칙을 성에 적용하면 성규범이 된다.²⁵⁾ 통일사상에서 존재의 다양한 법칙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으나 이 논의에서는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의 보편적 법칙들을 설명하고자 한다.²⁶⁾

1. 완성을 향한 성장기간의 법칙

통일사상은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²⁷⁾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비롯한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들은 모두 그 과정을 통하여 목적을 이루게 된다. 지구가 형성되는 장구한 세월이 지나서야 식물, 동물,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성장과정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과일나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심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움튼 후에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기간을 기다려야한다.

인간의 성도 예외가 아니다. 남녀의 성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까지는 인간의

22)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221-222쪽 참고.

23) 통일사상은 존재세계의 우주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작용, 발전, 번식을 지배하는 우주의 보편적 법칙이 있다고 한다. 그 보편적 법칙은 우주의 자연계와 인체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법칙을 천도라고도 말한다.

24) 통일사상은 보편적 법칙 가운데 인간사회에만 작용하는 법칙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는 법칙을 가치법칙이라고 설명한다. 이 법칙을 천도라고도 말하고 규범이라고도 표현한다.

25) 가치법칙, 즉 규범을 학교에 적용하면 교사-학생의 규범이 되고 회사에 적용하면 기업의 규범이 될 수 있다. 가치법칙은 인간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26) 통일사상은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천도 또는 천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주체와 대상의 원만한 수수작용을 위시한 다양한 존재법칙을 말한다. 원리강론에서는 창조원리에 의한 성장기간과 상호의 존적 계층성의 법칙과 다양한 법칙을 말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통일사상요강과 원리강론에서 설명하는 우주의 법칙들을 정리하여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6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27)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서울: 성화사, 1993), 56-58쪽 참고.

발달과정인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부부로서의 공식적인 인연으로 공표하는 결혼식을 거쳐야 비로소 성행위나 성관계가 허용되는 것이다.²⁸⁾ 온전한 성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신체적 구조와 생리적 기능,²⁹⁾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³⁰⁾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 성교육자, 앤랜더스는 그의 저서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심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³¹⁾ 10대 청소년들은 성호기심과 성충동의 자극을 쉽게 느끼는 시기이므로 이성교제를 할 때, 대부분의 남자 친구들은 여자 친구에게 “네 사랑의 표정을 보여 달라”는 의미로서 성관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때 여자 친구의 입장에서는 “남자답게 참고 기다리면서 그의 사랑을 증명해 달라”고 남자친구에게 부탁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여자 친구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심의 발로가 강하다는 것이다. 그는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성관계는 당사자들의 자제심과 양식의 결여를 보여주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³²⁾

청소년들이 결혼을 하여 허락된 성관계를 위한 성장기간을 거치기 전에 성관계를 갖는다면 열매가 익기 전에 따버리는 격이 되어 자연 법칙과 가치법칙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것은 신체적 성장기간을 기다리지 못하였으므로 자연법칙을 벗어났으며,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성숙이 필요한 성숙기간을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가치법칙, 즉 성규범을 벗어난 성행위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결혼 전 까지 자제력을 가지고 자신의 성욕구를 잘 다스리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양식을 갖춘 인격자가 순결한 삶을 사는 순결성의식, 순결성태도인 것이다. 성장기간의 법칙은 완성을 향하여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의 기다림의 기준을 알려주며, 행복한 삶의 길로 안내해주며,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참고 기다리는 삶의 이유와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³³⁾

2. 상대성의 법칙

통일사상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성상과 형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의 상대적 관계를 맺

28) 김양희·이영실, 『결혼과 가족』(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2002), 132쪽.

우리나라는 결혼의 의미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성관계 허용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법을 어기면서 혼전 성관계를 하여 성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29) 인체의 생리적 기능과 생식작용은 보편적 법칙의 자연법칙에 의해 작용, 번식한다,

30)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성숙은 보편법칙의 가치법칙에 의해 발전한다. 통일사상은 이 가치법칙을 인간 사회에서만 작용하는 규범으로써 설명한다. 특히 성과 관련된 가치법칙은 성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31) 앤 랜더스, 오경수 역, 『10대 사랑과 순결의 대화』(서울: 가정문고사, 1981), 52-53쪽.

32) 앤 랜더스, 『10대 사랑과 순결의 대화』, 53쪽.

33) 청소년들이 미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법칙이 성장기간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완성을 향하여 기다리는 기준을 알려주며, 행복한 삶의 길을 안내해주며,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참고 기다리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으면서 각기 존재, 운동, 발전, 번식한다고 한다.³⁴⁾ 성상은 무형적, 기능적 측면이며, 형상은 유형적 질료적 측면을 말한다.³⁵⁾ 원자는 양자와 전자, 분자는 양이온과 음이온, 식물은 수술과 암술, 동물은 수컷과 암컷,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상대적 관계를 각각 가지면서 존재, 작용, 발전한다.

상대성의 법칙에서 동물은 발정기 때 번식을 위하여 “1: 다수”의 상대관계가 가능할 때도 있지만 인간의 성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관계만을 허용한다. 역사적으로 일부 다처제나 일처다부제의 문화가 형성되었던 문화가 있으나 그것은 상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문화로서 올바른 일부일처제의 문화로서 수정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³⁶⁾ 통일사상에서는 “1:1”의 관계 외의 다양한 관계는 모두 인간시조의 타락에 의해 잘못된 상대관계이기 때문에 미래사회의 이상적 관계는 일남 일녀로서 부부의 관계만이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⁷⁾

남녀의 상대적 관계가 “1:1”의 관계만을 허용하게 되는 법칙은 사랑의 속성 때문이다.³⁸⁾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를 절대로 잃고 싶지 않은 사랑의 속성이 있다. 이 속성은 사랑하는 남녀관계에서 1퍼센트도 다른 이성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부의 사랑관계는 절대적으로 배우자만을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서로가 절대적으로 유일하고 불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원한다. 사랑의 속성을 이루는 부부관계는 신뢰감이 형성되며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된다. 결혼한 부부관계에서 남자나 여자가 혼외정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부부관계의 신뢰감이 무너지게 되며 불신과 대립, 그리고 갈등관계가 시작 된다.

문선생은 부부의 생식기주인은 배우자이며, 그 주인이 엇바뀌어 있다고 가르친다.³⁹⁾ 남자의 생식기주인은 여자이며, 여자의 생식기 주인은 남자라는 것이다. 인간의 생식기의

34)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222쪽.

상대성의 법칙 역시 자연법칙과 가치법칙이 함께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의 경우는 자연법칙과 가치법칙을 모두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다. 자연법칙은 쌍쌍제도로써 암술과 수술, 암컷과 수컷이 일체를 이루어 작용, 번식, 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1:1의 관계로서 부부관계를 맺어야 한다. 동성애의 성행위가 항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법칙을 어기는 것이다. 항문이란 대변이 나오는 구멍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구조되어 있다. 음경이 항문으로 들어가도록 구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의 짝을 이루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로서 합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치법칙을 벗어나고 있다.

35)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30-33쪽 참고.

36) 통일사상에서는 남녀관계가 반드시 1:1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성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면 사랑의 속성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성질이 있어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어느 누구도 제3자가 개입되는 삼각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일처다부제나 일부다처제는 사랑의 갈등이 일어나는 관계이므로 안정되고 발전적인 관계적 삶을 위해서 영속할 수 없는 것이다.

37) 문선명, 『평화메시지 10』(서울: 성화사, 2008), 165-190쪽 참고.

38) 문선명, 『평화메시지 10』, 169-171쪽 참고. 사랑의 속성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39) 문선명, 『평화메시지 10』, 169-170쪽 참고.

합일은 남녀 생식기의 “1:1”의 상대적 관계로서 합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랑의 속성 가운데 “1: 다수”의 사랑관계로서 성관계를 제외한 상대관계를 허용하는 사랑의 영역이 있다.⁴⁰⁾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관계와 형제자매사랑의 관계, 그리고 자녀의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은 아무리 많은 자녀라도 모두 사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랑이 확대되어 이웃의 자녀들까지도 나의 자녀들처럼 사랑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형제자매사랑의 관계 역시 동료관계, 친구관계로서 다양한 관계로 확대 될 수 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관계도 이웃의 노인들을 나의 부모처럼 여기며 섬기고 봉사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박애 주의적, 이타 주의적 사랑이라고 말한다.

사랑의 성질 가운데 오로지 한 사람만의 사랑을 허용하는 것은 부부사랑관계의 영역에서만 요청되는 성질이다. 가정에서 부모사랑, 형제자매사랑, 자녀사랑의 영역에서는 사랑하는 대상이 많을수록 박애 주의적 사랑으로서 고무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사회의 현실은 상대성의 법칙의 반대 현상이 만연하다.

한 사람의 상대만 성과 사랑을 허용하는 부부사랑의 법칙 안에서는 혼전 성관계나 혼외정사로서 사랑의 질서를 파괴하는 양상이 늘어나서 이혼으로 무너지는 현상을 자아내고 있으며, 사랑을 많이 나눌수록 아름다운 사랑의 법칙 내에서는 오히려 사랑을 나누지 않는 성향이 강하여 많은 가정이 고부관계의 갈등과 자녀학대, 그리고 형제자매의 갈등관계로서 가정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자아내고 있다.

상대성의 법칙은 사랑의 속성과 생식기의 주인의식을 바르게 지킬 때 그 질서가 유지 될 수 있는 것이며 성규범적인 순결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대성의 법칙을 벗어나는 사랑의 관계는 순결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다. 상대성의 법칙 역시 순결한 삶의 기준으로서, 안내로서, 이유로서, 방법으로서 순결한 삶을 위한 작용을 한다.⁴¹⁾

3. 수수작용(授受作用)의 법칙

통일사상에서 모든 존재는 개성진리체인 동시에 연체(聯體)이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이 일정한 목적을 중심하고 상대기준을 조성하면 원만하고 조화로운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존속, 작용, 변화, 발전한다고 설명한다.⁴²⁾ 이러한 수수작용은 존재의 주체와 대상관계가 서

40) 문상희, 『이상가족관계형성을 위한 사랑의 가치관』, 『몽골반점동족과 세계평화』(서울: 몽골반점동족연합출판, 2006), 362쪽.

41) 남녀의 관계가 1:1의 상대성의 법칙대로 살아야 순결한 삶을 통하여 고통과 갈등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칙 역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안내하며, 순결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순결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며, 그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42)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84쪽.

로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공동목적을 중시하고 상호 교류하며,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의존적으로 원만성, 조화성, 원활성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수수작용은 상대에게 먼저 위해주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돌아오는 법칙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성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는 각기 남성성으로서 여성성으로서 다른 성을 가지고 참사랑의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이며 교류적인 수수작용을 하며 합일되는 것이다. 수수작용에 의한 부부의 사랑과 성관계는 자신이 위함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를 위해주기 때문에 원만한 인격관계와, 원활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부부관계에서 수수작용이 잘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일정한 공통요소가 중심이 되어서 상대기준이 조성되어야 한다.⁴³⁾ 그런데 일정한 공통요소를 중심한 수수작용은 반드시 일정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즉 부부의 사랑이 중심이 될 때 그 결과는 통일체, 혹은 신생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통일체란 부부사랑이 성숙되는 인격체로서 신뢰감이 돈독해지고 부부의 마음과 몸이 일체를 이루게 된다는 의미이며, 신생체란 새로운 성질, 새로운 요소, 새로운 현상, 또는 새로운 개체, 즉 자녀를 의미한다. 수수작용을 하는 두 관계는 서로 모순, 대립, 상충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의 사랑이 공통요소로서 작용이 되지 않으면 외형적으로 아무리 수수작용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작용은 조화성, 원화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상충과 대립,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의 가정과 사회현상의 대혼란은 수많은 유형의 상대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수작용이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의 상충과 갈등의 관계가 그 원인이다.

가정의 사랑의 영역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랑의 영역은 부부사랑의 영역이다. 부부사랑관계가 갈등이 시작되면 부모사랑, 형제자매사랑, 자녀의 사랑의 영역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어 가정전체가 갈등하게 된다. 부부관계가 원만한 사랑의 수수작용을 하려면 먼저 부부관계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한다.

부부관계에서 신뢰감의 형성은 혼전 순결한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혼전에 많은 성경험을 가진 남녀는 배우자를 믿기 어렵다. 자신의 건전하지 못한 성관계의 삶이 자신의 마음의 거울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상대를 쉽게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습관화되기 때문에 상대도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⁴⁴⁾

43)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85쪽. 사랑이 공통요소가 될 수 있고 가치관이 공통요소가 될 수 있으며, 취미생활이나 성격이 공통요소가 될 수 있다. 다양한 공통요소를 중시하고 부부가 합의를 이루어 수수작용을 이룸으로써 서로 발전하는 것이다.

44) 피터싱어 위음, 김성한. 김성호. 소병철. 임건태 옮김, 『규범윤리의 전통』(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5),

반대로 순결한 삶을 살아온 남녀는 상대를 자신처럼 순결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며 자연스럽게 서로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결혼한 부부가 부부사랑의 공통요소를 중심으로 수수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혼전 순결한 삶과 혼후 정절의 삶이 토대를 이루어야 원만하고 원활한 수수작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⁴⁵⁾

부부사랑에서 상대를 위하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그리고 만난 이후, 다른 이성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배우자만을 위해 지켜온 마음과 몸의 순수함과 깨끗한 사랑과 성을 선물하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수수작용의 법칙 또한 순결한 삶의 기준, 안내, 이유, 방법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⁴⁶⁾

4. 목적성과 중심성의 법칙

존재하는 주체와 대상관계에 있는 두 요소는 반드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통일사상은 설명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중심 삼고 수수작용한다고 한다.⁴⁷⁾ 만일 두 존재가 목적이 상반된다면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서 수수작용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인간의 성은 부부간의 참사랑관계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작용의 중심에 참사랑을 두고 부부의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일에 어느 한쪽이 혼외 성관계를 한다면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갈등이 시작되게 된다. 부부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성규범을 벗어났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신뢰를 토대로 하는 사랑관계가 무너지게 된다.

목적이 서로 다른 부부는 삶의 내용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형성되어짐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부부공동체 뿐만 아니라 가족공동체, 그리고 사회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원만하고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반드시 공동체구성원의 목적이 동일해야 하며 그 중심에 상대를 위하고 전체를 위하는 사랑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상대와 전체를 위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이익이 자리 잡게 되면 공동체의 구성원 관계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얽히어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된 관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15-16쪽 참고.

45) 순결의미에서 상론한대로 사랑완성을 위한 출발이요, 기초요, 토대는 순결한 삶이기 때문이다.

46) 부부간에 서로 먼저 사랑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법칙은 순결한 삶을 통하여 부부의 행복한 삶을 사는 기준이요, 이유요, 안내요, 방법이 된다.

47)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222쪽. 부부관계에서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인지, 집은 언제쯤 마련할 것인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지,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가사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나누는지, 한 달에 외식은 몇 번을 하는지, 등의 크고 작은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여 부부가 함께 노력하는 가정이 화목하고 발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고 가정과 결혼의 전문가인, 이정우, 김명자가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대로 가정공동체나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평화로운 관계에는 그들의 목적과 중심에 순결한 삶을 토대로 한 사랑이 위치해야한다. 가정공동체의 중심은 부부의 순결한 삶과 사랑이 작용하여 가족의 안정된 정서와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된다.

순결한 가족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로서 순결한 사회가 형성되어 사회의 성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논의한대로 목적성과 중심성의 법칙도 순결한 삶의 기준, 이유, 안내, 방법으로서 기능한다.⁴⁸⁾

5. 질서성과 위치성의 법칙

존재하는 개체는 반드시 각각의 위치, 즉 격위(格位)를 가지고 있다고 통일사상은 말한다.⁴⁹⁾ 각 개체의 위치는 질서를 위한 것이며 그 존재가 그 자체의 위치를 잘 지킴으로써 전체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통일사상은 자연의 우주질서는 종적질서와 횡적 질서가 있다고 한다. 종적질서는 미시세계의 원자로부터 천체에 이르는 질서이며, 횡적 질서는 태양을 중심한 아홉 개의 혹성의 배열이라고 설명한다.⁵⁰⁾ 존재하는 한 개체는 개성진리체이면서 동시에 연체이기 때문에 대상 격위에 있는 동시에 주체 격위에도 있게 된다. 그 결과 수많은 개체들은 상하, 전후, 좌우로 연결되면서 위치의 계열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위치의 계열이 질서이다.⁵¹⁾

가정의 질서는 우주질서의 축소형이며, 가정질서의 확대형이 우주의 질서라고 말한다.⁵²⁾ 손자-자녀-나(부부)-부모-조부모의 질서는 종적질서요, 부모를 중심한 형제자매들의 서열은 횡적 질서이다. 부부는 가정의 질서의 중심의 위치에 있다. 부부 관계의 근본은 사랑과 성의 관계이며 사랑과 성의관계란 한 쌍의 관계이며, 한 쌍의 관계는 사랑을 중심으로 부부의 생식기의 합일의 관계를 의미한다.⁵³⁾ 그러므로 사랑과 성의 관계에서 어느 한 배우자가 혼외의 다른 쌍의 관계를 이루게 되면 그 부부의 위치를 벗어나게 되어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다. 부부관계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 가정전체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48) 부부가 참사랑을 이루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정절을 지키며 생활할 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므로 목적성과 중심의 법칙 역시 부부의 순결한 삶의 기준과 이유와 안내와 방법을 말해주고 있다.

49)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223쪽.

50) 우주의 종적질서는 달(위성)과 지구(혹성)가 대상과 주체의 관계로 수수작용한다. 지구는 태양과 수수작용하여 다른 혹성과 태양계를 형성한다. 태양은 다른 항성과 수수작용하여 은하계를 형성한다. 은하계는 다른 많은 은하계와 더불어 우주의 중심부와 수수작용을 하여 우주전체를 형성한다. 이때, 달(위성), 지구(혹성), 태양(항성), 핵항성계, 우주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계열이 우주의 종적질서이다. 우주의 횡적 질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 아홉 개의 혹성이 횡적으로 질서 있게 배열하고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혹성간의 배열이 태양계의 횡적 질서이다.

51) 순결의 광의의 의미에서 격위적, 연체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부연 설명을 하지 않는다.

52)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218-219쪽.

53) 문선명, 『평화메시지 10』, 168-176쪽.

것이다.

오늘 우리사회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성행위나 성관계가 늘어나고 있다. 부부관계에서만 가능한 성관계를 아버지가 자기 딸을 범하거나 어머니가 아들을 범하는 근친상간이 비일 비재하며, 다양한 성폭력의 행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일탈행위의 현상이다. 질서성과 위치성을 벗어난 성행위나 성관계에 의해 사회의 성문란이 파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질서성과 위치성의 법칙도 순결한 삶의 기준, 이유, 안내, 방법이 된다.⁵⁴⁾

6. 상호의존적 계층성의 법칙

원리강론은 연체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한다. 연체란 수많은 차원으로 연계된 모든 존재는 이중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⁵⁵⁾ 이중목적이란 개체목적과 전체목적성을 말한다. 전체목적이란 호혜적(互惠的), 이타적(利他的)작용, 혹은 행위를 의미한다.

광물질은 그 자체가 존재하기 위한 개체목적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더 큰 존재, 즉 식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전체목적성을 위해 존재하고 작용한다. 식물은 식물개체와 더 큰 전체의 동물을 위해, 동물은 동물개체와 더 큰 체계의 인간을 위해, 인간개인은 개체의 존재목적과 가정을 위해, 가정은 가정의 존재목적과 사회를 위해, 사회는 사회의 발전과 더 큰 국가를 위해, 국가는 국가 개체와 더 큰 범위의 세계를 위해, 세계는 세계자체와 천주를 위해, 천주는 천주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위해 존재하며 작용한다.

가정에서 부부는 각자의 자아성취를 위한 개체목적의 삶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더 나아가서 가정전체의 화목과 안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한 봉사와 희생이 필요하며 그들의 자녀의 정서와 미래의 삶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게 된다. 부부는 전체가정의 화목과 안정, 그리고 질서를 위해 서로 극복하는 노력의 태도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부모에게 바라는 자녀의 소망은 어머니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화합하여 일심, 일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부부가 갈등하여 이혼에 이르러서 다시 다른 이성과 재혼을 하게 된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둘이거나 어머니가 둘이 되게 된다. 그때부터 자녀들의 정서적, 심리적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녀의 생각은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 부모가 계속적인 사랑으로 교육하고 양육해주길 바라는 것이 자녀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54) 가정의 구성원들의 자기 위치가 정해져있으며 그 위치에 따라 의무와 권한이 다르다. 그러므로 각 구성원이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함으로써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질서성과 위치성의 법칙도 순결한 삶을 위한 기준, 이유, 안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55)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52쪽.

가정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는 모두 상호의존적 계층성에 의하여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의 질서는 가족구성원들의 화목과 단합을 이루는데 기초가 된다. 화합체를 이룬 그 가정은 사회공동체와 상호관계를 맺으며, 존속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가정이 사회공동체와 바람직한 상호협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의 관계가 질서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어야 가능한 것이다. 위에서 논하였듯이 가정의 화합의 핵은 부부관계이며, 그 핵심적 요소가 사랑과 순결한 삶이라는 것이다. 즉 순결한 삶의 기준, 이유, 안내, 방법은 상호의존적 계층성의 법칙의 기능이다.

위에서 논의된 여섯 가지 보편적 법칙들은 서로 연결고리를 이루어 함께 작용한다. 어느 한가지의 법칙이라도 무시되고 그 법칙을 벗어나게 되면 구성원들이 그 법칙을 벗어난 내용만큼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여섯 가지 법칙 가운데 특히 순결의 핵심적 의미와 관련된 법칙은 성장기간의 법칙과 상대성의 법칙, 그리고 수수작용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순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당위적이며, 필요한 여섯 가지 보편적 법칙들을 구성원들이 실천하게 될 때 이 법칙들은 순결한 삶의 기준으로서, 안내로서, 이유로서, 방법으로서 작용하여 순결한 성의 구현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⁵⁶⁾

IV. 순결한 성의 구현을 위한 제언

최근 우리사회는 왜곡된 성문화 정보가 여과 없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자녀들의 주변 사회적 환경은 설적 음란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서 향락적 성의 상품화에 따른 왜곡된 성의식과 성가치관을 청소년들에게 인식시키는 성의 사회화의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⁵⁷⁾ 왜곡된 성문화 정보에 의한 성지식의 만연이 사회적 역기능으로써 작용하여 우리사회에 성폭력, 스와핑, 동성애, 동거문화, 청소년성매매 등의 일탈된 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성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드러내는 대상으로 잘못 이해하는 기성세대들의 성의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절에서 성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순결한 성의 구현에 있다는 것을 논의한 것에 의해 가정과 학교에서 정규범교육의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56)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들이 유기적 관계로서 상호의존적으로 협조적 관계에 있으며 보다 더 큰 존재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때 전체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다. 여섯 가지의 보편적 법칙들은 순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천도요, 천법으로서 작용한다.

57) 이성희·한희선, 「청소년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자원개발연구소논문집』 제2권 제1호, 1996, 35-46쪽.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공동체로서 인간의 지능, 성격, 신체, 정서 형성의 주요한 토대를 이룬다. 가정이 본래의 참된 기능을 잃게 될 때, 성장하는 자녀들의 혼란이 야기된다.⁵⁸⁾ 전통사회에서 가정은 대가족의 형태 안에서 종적, 횡적관계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생활 터전이며 규범교육의 장으로서 정서적, 지적, 성격적으로 안정된 성장과 발달이 가능한 곳이었다.⁵⁹⁾

그러나 현대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러한 기능들의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핵가족형태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맞벌이 하면서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정겹게 식사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어려운 환경과 더불어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⁶⁰⁾ 현대가정에서 가정의 기능들 가운데 성규범에 대한 자녀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 성담론 자체를 금기시하는 우리나라 가정의 분위기에서 부모들이 성장하는 자녀에게 성이야기를 자녀에게 말하는 자체를 쑥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때문이다. 더군다나 결손가정이나, 자녀교육이 약화된 가정, 혹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들은 부모의 무관심으로 자녀들에게 성규범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왜곡된 성의식과 성태도를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학교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1983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교성교육 지침서에는 순결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⁶¹⁾ 순결이란 구세대의 전유물로 여기며 더 이상 순결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학교성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중립적 성교육관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의 순결한 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고하고 판단할 기회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성교육자들과 성윤리학자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성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왔으나 오늘의 기성세대를 위시하여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성문제는 날이 갈수록 그 유형이 다양해지며 양적인 증가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 성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가정과 사회적 고통과 성규범의 해체를 경험하는 국가적 차원의 재해를 만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⁶²⁾

우리나라의 성문제 해결의 접근법들은 대부분이 법률적, 제도적 변화로 왜곡된 성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법률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들은 성행위문제의 결과적 측면에서 그 해결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위주의 방정책은 기성세대들의 성의 상품화문제와 청소년들의 성의 일탈 문제들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성행위의 결과에 대한 처벌위주와 제도적 방정책은 개인으로부터 사회적 차원의

58) International Education Foundation, *Building Healthy Marriages*(Moscow: IEF, 2002), p. 35-42.

59) 한국가족학회, 『가족학』(서울: 하우출판사, 1999), 104-107쪽.

60) 최인숙, 『혼련중심 부모교육프로그램』(서울: 교육과학사, 2006), 156-158쪽.

61) 1983년 이후 현재에 이르는 학교성교육지침서를 보면 순결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62) 김상원, 『성교육/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35쪽.

성문제원인과 형성과정의 동기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이에 왜곡된 성의식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순결한 성의 구현을 위해 성규범 교육실시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의 질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성의식과 성태도에 의해 형성된다. 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보편적 법칙들, 즉 성규범을 준수하는 삶은 순결한 성의식과 성태도를 갖는 삶이라고 상론하였다. 가정의 성질서는 사회공동체 성질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이 성규범에 따른 순결한 성의식과 성태도를 가지고 성의 질서를 유지한다면 우리 사회는 건전한 성의 질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성행위의 기준을 알려주고, 순결한 삶의 안내를 하며, 순결한 성태도를 지녀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알려주는 성규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상론한 여섯 가지의 보편적 법칙을 준수하는 순결한 성의식을 수립하도록 돕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

IEF 교육기관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보편적 법칙을 준수하는 성의식이 수립될 때 그 의식이 성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기심과 과소비를 극복할 수 있고, 절제력을 기를 수 있으며,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⁶³⁾ 미국의 성윤리학자, 앤드류 윌슨(Andrew Wilson)은 지금까지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학교에서 가치중립적 성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수립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의식과 성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의 절제의식을 가지는 성가치관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⁶⁴⁾

둘째, 가정에서는 부모자신이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규범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먼저 상론한 보편적 법칙을 알고 실천함으로써 일상적으로 자녀들에게 성규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⁶⁵⁾ 모방성향이 강한 3-4세 유아기부터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언행을 통하여 규정된 교육통로와 부모의 모델적 삶을 통한 잠재적 교육통로에 의해 자녀들의 올바른 성의식 형성을 위해 성규범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성행위의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규범적 기준과 안내, 그리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올바른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보편적 법칙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63) International Educational Foundation, *My Journey in Life*(Moscow: IEF, 2002), p. 220-229.

이 책에서 소련과 동구라파지역, 그리고 중국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규범 교육을 받은 후에 순결한 삶을 살아감은 물론 건강한 결혼생활을 영위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64) Andrew Wilson, *Cultivating Heart and Character*(Chapel Hill, North Carolina: Character Development Publishing, 2002), 6-8 Page. 우리나라 성교육 역시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성교육지침서를 보면 성행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학생스스로에게 맡기고 있는 가치중립적 성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성의 결정자는 성의 주체성을 지닌 학생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성행위의 결과를 학생 스스로 책임지도록 교육하게 된다.

65) 최인숙, 『훈련중심 부모교육프로그램』, 230-258쪽.

만일 성규범의 기준이 명료하지 않거나 성규범적 삶, 즉 순결한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행동적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그들에게 순결한 삶을 위한 명료한 안내와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한 번의 일탈된 성행동으로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셋째, 교육전문기관으로서 학교의 역할은 가장 크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학교 성교육에서 상대방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성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깨닫고 실천하게 하는 순결한 성의식과 성태도를 수립하도록 성규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보편적 법칙에 따른 성규범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래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성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성규범교육을 주당 정규수업시간에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학교는 중장기적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대책으로 교과과정의 개편을 통하여 성규범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넣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청에서 연간 15시간 내외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특별활동이나 대체학습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상화되어있다.⁶⁶⁾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서 성규범교육을 정규교과목으로 설정해야 한다.

넷째, 성규범 전문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교육대학원, 교육대학 및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에 성규범 전공과정을 설치하여 일반교사가 이수하도록 하여 성규범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양호교사나 보건간호사들이 교원연수원을 통하여 성규범교사 자격연수과정에 참여하여 자격증을 수여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학에서 말하듯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으므로 성규범전문가 양성은 순결한 성문화조성을 위해 최대의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규범교재와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 성규범지침서가 전체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보급되어 학생들이 직접 읽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 내에 성규범학습 코너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언제라도 궁금할 때 읽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서 성상담실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성정보를 습득하도록 하여 성의식과 성태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V. 맺는 말

66) 김상원, 『성교육/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32쪽.

위에서 논의한 대로 보편적 법칙을 준수하는 것은 순결한 삶을 구현하는 삶이며 모든 구성원들이 순결한 삶을 실천할 때 왜곡된 성의식과 성태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먼저 성문제를 일으키는 다양한 왜곡된 성정보를 제공하는 구성원들과 일탈된 성행위를 촉발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성지식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성충동과 성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들의 성의식을 순결한 성의식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성의 질서는 세워지기 어렵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성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가정과 사회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성의 질서회복을 위해 법적 제도적인 접근으로서 단속과 처벌위주의 성문제 해결방안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서 성행위의 동기와 원인을 조절할 수 있는 성의식을 올바르게 수립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순결한 삶을 위한 순결한 성규범교육의 실시를 제안하였다.

순결한 삶의 순결한 문화를 수립하기 위해서 개인과 가정, 학교, 사회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는 매우 중요하며 절실한 문제이다. 보편적 법칙에 따른 순결한 삶의 구현을 위하여 순결 성규범교육을 필수적으로 교육하는 전문인들의 실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상원, 『성교육/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출판사, 1999.
- 김양희, 이영실, 『결혼과 가족』,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2002.
- 남기영, 허우성, 김수중, 정연고, 최정식,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회생물학, 플라톤, 유가, 불교, 기독교를 통해 본 인간』, 서울: 민음사, 1997.
- 문상희, 『부모자녀 함께 이루는 절대성』, 아산: 선문대학교, 2007
- 문상희, 『통일사상으로 본 순결학의 이념과 교육내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통일사상연구논총』 아산: 선문대학교, 2002.
- _____, 『이상가족관계형성을 위한 사랑의 가치관』, 『몽골반점동족과 세계평화』, 서울: 몽골 반점동족연합출판, 2006.
- _____, 『심정과 규범의 대학교육: 애천, 애인, 애국의 건학이념의 구현을 중심으로』, 『한학자 화갑 기념집』, 서울: 성화사, 2003
- 문선명, 『평화메시지 10』, 서울: 성화사, 2007.
- 박종신, 『순결, 그 아름다운 성이야기』, 서울: 진흥출판사, 1997.
-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사, 1987.
- 앤 랜더스, 오경수 역, 『10대 사랑과 순결의 대화』, 서울: 가정문고사, 1981.
- 윤가현, 『성 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2002.
- 이상현,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사, 1993.
- 이성희, 한희선, 『청소년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자원개발연구소논문집』 제2권 제1호 1996.
- 최인숙, 『훈련중심 부모교육프로그램』, 서울: 교육과학사, 2006.
- 피터싱어 엮음, 김성한, 김성호, 소병철, 임건태 옮김, 『규범윤리의 전통』,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5.
- 한태선, 『조선전통사회의 신분독점과 이에 따른 규범문화형성』, 『한국사회의 규범문화』,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International Education Foundation, *Building Healthy Marriages*, Moscow: IEF Co, 2002.
- International Educational Foundation, *My Journey in Life*, Moscow: IEF Co, 2002.
- Andrew Wilson, "Promoting Directions for Character Education" *Cultivating Heart and Character*, Chapel Hill, North Carolina: Character Development Publishing, 2002.
- International Educational Foundation, *Ethics of True Love and Sexuality*, Moscow:: IEF Co, 2002.

원고접수: 2009년 5월 11일 1차심사: 6월 8일 게재승인일: 6월 19일

연구자 소개: 문상희

① 전공: 신학, 교육학박사 / 소속: 선문대학교 순결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교육학, 순결학, 성교육학

③ 주요논저: 「부모-자녀 함께 이루는 절대성」, 「순결학의 이념과 교육내용」, 「가족붕괴 예방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내용」,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심정과 규범의 성가치관교육」, 「모델이상 가족체계 안에서의 가족관계」, 「성기관의 존재목적 중심의 성윤리 기준」

④ E-mail: sanghuy@sunmoon.ac.kr

Abstract

**The Embodiment of Pure Love Sexuality Based upon
Universal Laws of Existence
-From the Perspective of Unification Thought-**

Moon, Sanghuy

Sun Moon University

Sexuality is the origin of the human community. Human history has continued through human sexuality. A public order of sexuality is needed for the peaceful prosperity of families, communities, and societies. A public order of sexuality is established by the sexual awareness and sexual attitudes of the constituent family and community members. The universal laws of human sexual awareness are the norms of sexuality. In order to continue the public order of sexuality in families and communities, human beings should follow the norms of sexuality. Following the universal laws, namely, living a life that obeys the norms of sexuality implies living a life of pure love. The norms of sexuality mean the standards, reasons, guidelines, and ways of a life of pure lov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solutions for the sexual problems of our societies, through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rimary factors of the problems of distorted sexuality in our societies. This thesis also considers what a life of pure love is, how to follow universal laws and how to live lives of pure love. This paper discusses pure love sexuality as following universal laws from the perspective of unification thought.

Key words : Sexual Awareness, Sexual Attitudes, Order of Sexuality, Sexual Norms, Universal Laws, Pure Love Sexuality